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

수신	000 대표이사
(참조)	방송 가이드라인 제작 담당자
제목	방송 가이드라인 상 동물복지 대책 수립 요청의 건

1. 생명존중문화 창달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는 동물 학대 예방 및 구조,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 농장동물, 실험동물, 전시동물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중 인식 확산과 연구 조사, 동물복지 정책 협력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3. 최근 KBS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 중 발생한 말 학대 사망과 관련, 생명 존중과 동물보호를 위한 미디어의 올바른 역할에 대하여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 귀 방송사에서도 방송 제작 및 촬영 과정에서 동물보호·복지 제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책 수립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가. ‘시청자 위원회’에 동물복지 전문가 참여 보장

나. 동물복지 전문가 포함한 ‘동물촬영윤리위원회’(가칭) 설치

다. 촬영과 관련한 전체 구성원 혹은 동물 촬영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제작 담당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동물보호교육 실시

라. 동물보호·복지 제고를 위하여 해당 내용을 포함한 제작 가이드라인 제정 또는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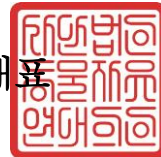
- 1)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동물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 선언
- 2) 촬영 시 동물보호법 준수 및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 규정
- 3) 촬영 난이도(위험성)를 분류하여 각 등급에 따른 안전대책 수립 및 동물복지·안전 전문가(수의사 등) 현장 배치

- 4) 동물이 생명을 잃거나 부상의 위협이 있는 등 위험한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 살아있는 동물 동원을 금지하고 CG 또는 모형을 이용
- 5) 촬영 현장에서 동물을 보호하는 동안에는 동물의 휴식 공간, 촬영 시간 제한, 적절한 먹이와 물 공급 등 동물복지 기준을 기반으로 한 사육관리 지침 마련
- 6) 동물 종에 따른 적합한 보호·복지 기준 마련

5. 그 동안 방송 촬영 과정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소품’ 취급하는 관행이 수차례 문제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동물의 희생을 예방하고 미디어를 통한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동물복지 지침을 포함한 방송 가이드라인 구성을 요청드리오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6. 더불어 우리 단체의 요청 사항에 대한 회신을 2월 4일(금)까지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회신 여부 및 내용은 우리 단체 홈페이지, SNS 및 출판물 등을 통해 인용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끝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 대표



담당 팀장 정진아 국장 한혁 대표 조희경

시행 : 전략 2022-008 (2022. 01. 27.) | 접수

주소 : 133-070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 17길 1-77 | 홈페이지 : <http://www.animals.or.kr>

전화번호 : 02-2292-6337 | 팩스번호 : 02-2292-6339 | 전자우편 : mau13@animals.or.kr | 공개